



“내 사진이 이 세계를 향한 의문부호로 스며들기를” 사진가 노순택

글 · 김미영 kimmy@hani.co.kr

대중에게 사진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핸드폰카메라 혹은 디지털카메라로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사진과 대중과의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일반대중에게 ‘사진가’ 또는 ‘사진가의 사진’은 난해한, 그렇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진작가 ‘노순택(39세)’ 에겐 예외다. 그는 지금, 대중들이 가장 많이 알고 대중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진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분단의 향기>, <얇은 공>, <레드 하우스>, <비상국가>, <거울정치> 등의 작업을 통해 분단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폭력과 갈등의 문제를 끄집어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진에 공감했다. ‘다소 난해하다’는 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진 속에는 잊고 있었던 한국사회의 부조리를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다.

예를 들면 평택 대추리에 위치한 미군의 레이더돔(radar+dome=radome)인 ‘얇은 공’ 시리즈를 보고 있다면, 기지 이전을 둘러싼 전경과 주민의 대치는 물론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의 문제까지 고민하게 만든다. 남북은 왜 분단됐으며, 미군이 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주민들은 왜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일까 등등.

북한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보여주는 <레드 하우스>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담은 1장 ‘펼쳐들다’, 최근 10년 동안 남북 교류의 표면을 보여주는 2장 ‘스며들다’,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을 표현한 3장 ‘말려들다’ 속 사진들을 보면, 남한과 북한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상식과는 비껴서 있다. 한마디로 ‘OO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

그에게 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그 역시 “남한과 북한은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굉장히 닮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이 아니”라며 “남한이 북한이 알고 있는 그 남한이 아닌 것처럼”이라고 설명한다.

내 사진 통해 시각적·인식적 게임 이뤄지길 원해

그의 사진은 저널리즘에서 다루는 현장을 다루지만, 분명히 다른 메시지가 있다. 단순한 ‘정보 제공’ 혹은 ‘계몽’이라는 다큐멘터리적 특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 역시 “내 사진에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저널리즘적 시각이 전혀 강하지 않다”며 “정보가 담겨있긴 하지만, 그 목적이 ‘정보 제공’이 아니라 오히려 의문과 혼란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발 딛고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나는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뭔가’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석연치 않고 개운치 않은 무언가를 제공하는 의문과 혼란. 저는 짐짓 도덕적인 체 하는 언술을 하고 싶지도 않고, 교훈이나 감화를 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작업에서 시각적 게임, 인식적 게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거나 진실을 얘기한다는 말 역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종의 과대망상이라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굉장히 교훈적이고 계몽적이



레드 하우스(Red House series) 128x90cm, Archival Pigment print, 2005

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무언가를 호소하는 역할들을 해왔는데, 제 사진은 약간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몰입이나 감동이 아니라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교수신문〉〈오마이뉴스〉 사진기자 거쳐 전업 사진작가로

그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뒤 〈교수신문〉〈오마이뉴스〉 사진기자를 거쳐 전업 사진작가로 뛰어들었다. 그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덕

분에 사진에 빠져들게 됐다”고 농반 진반 말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1990년대 초반은 군사독재정권의 막바지였습니다. 구조적이고 부패한 범죄는 오히려 옹호하면서 저항적 수단으로서의 불법이나, 사회 그늘에서 자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구속되거나 다쳤고 술한 학생들과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사실은 무엇이며 거짓은 무엇인가,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고민은 그런 의문을 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우연히 접한 윤금이 씨 사진, 그리고 2003년 여중생 미션효순의 죽음까지…….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분단’이 되었고, 2004년 〈분단의 향기〉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그의 관심은 점차 확대돼 주한미군, 북한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 원동력은 왕성한 ‘호기심’이다. “떨쳐내기 힘든 의문, 피어오르는 호기심.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 허를 찔러주는 것이 흥미로워요.”

어쨌든 그는 짧은 기간임에도 국내외, 사진계 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도 주목받은 작가로 성장했다. “예상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누가 나를 주목하건, 주목하지 않건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주목은 의미 있지만, 또 어떤 주목은 귀찮거나 소모적이거든요. 제가 세상에 내놓고 싶은 건 제 작업이지, 제 자신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니므로 현 위치에 만족하고 말고가 없습니다.”고 답했다.

지난해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함부르크에서 〈비상국가〉라는 타이틀로 연 그의 개인전이

큰 호평을 받았다. 올해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시가 예정돼 있다. ‘비상국가’라는 타이틀로 지난해부터 유럽에서 순회전을 하고 있는데, 슈투트가르트와 함부르크에 이어 3번째 전시다. ‘비상국가’에는 근대국가의 권력 시스템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떻게 비상상황을 조장하고, 또한 근대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 경찰력을 이용해 시민사회를 통제하는가에 대한 그의 관심이 담겨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을 담은 ‘레드 하우스’(Red house), 리들리 스콧의 영화 블랙호크다운을 한국적 현실에서 비꾼 ‘Black Hook Down’, 권력의지의 폭력적 대리물로 전략해 버린 경찰력에 관한 단상을 담은 ‘State of Emergency’, 1980년 광주 희생자들과 오늘의 상황을 묘사한 ‘Forgetting Machine’, 한국 보수주의의 단면을 담은 ‘Patriotic Road’ 등 8개 시리즈 200여점의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세상에 대한 의문으로 거리에서 셔터를 누르다

노순택 사진의 특징을 들자면 역시나 ‘현장’의 생생한 기록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역사의 한 단면으로 사라져가는 광주를 되살리는 작업을 비롯 온갖 구호가 난무하는 서울 시청앞 광장, 평양, 매항리, 대추리, 용산참사 현장 등 한국사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그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다. 그는 “그러한 세상에 태어나, 그러한 세상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무언가 벌어지는 현장, 벌어졌던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의 작업이 주로 거리에서 이뤄지는 탓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담감이 없을까.

“글쎄요. 사람모살을 하는 편이라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는 못합니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저 스스로 남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상당히 피곤합니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을 작업의 준칙으로 삼으려 하는데, 가끔은 그게 산산이

알못한 공(The strAnge ball series) 100x80cm, Archival Pigment print, 2004~2007



비상국가 (State of Emergency series) 128x90cm, Archival Pigment print, 2006

박살나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대추리 작업이 그랬습니다.”

그의 사진들은 잘 꾸며진 전시관이나 비싼 책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의 사진을 접할 수 있다. 최근 그는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모임' 소속 16명의 사진작가와 함께 용산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달력을 만드는 일



에 참여했다. 사진 내용은 용산참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삶의 풍경'이지만, 수익금은 전액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장례 비로 지원되는 뜻 깊은 사업이다.

(참조 :<http://dysphemism.egloos.com>)

그는 지금 노순택이라는 이름보다, 앞으로의 노순택이라는 이름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다. 지금은 '좋은 살인'이라고 이름붙인, 첨단정밀과학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전쟁무기와 그것을 둘러싼 해프닝들을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위저가는 영정사진들을 토대로 허물어져가고 있는 1980년 광주를 반추해보는 작업도 병행중이다. 내년쯤 <망각기계>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낼 계획인데, 그는 “광주가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에요. 요즘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광주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에게 배후 조종된 폭동이라는 시각이 남아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 고향인 합천에서 일해공원을 만든 것들을 보면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어떤 사진가로 기억되고 싶느냐고. “제 작업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의문으로 스며들길 바랄 뿐, 제 자신이 어떤 작가상으로 기억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글 김미영 | <한겨레> 기자
사진제공 | 노순택